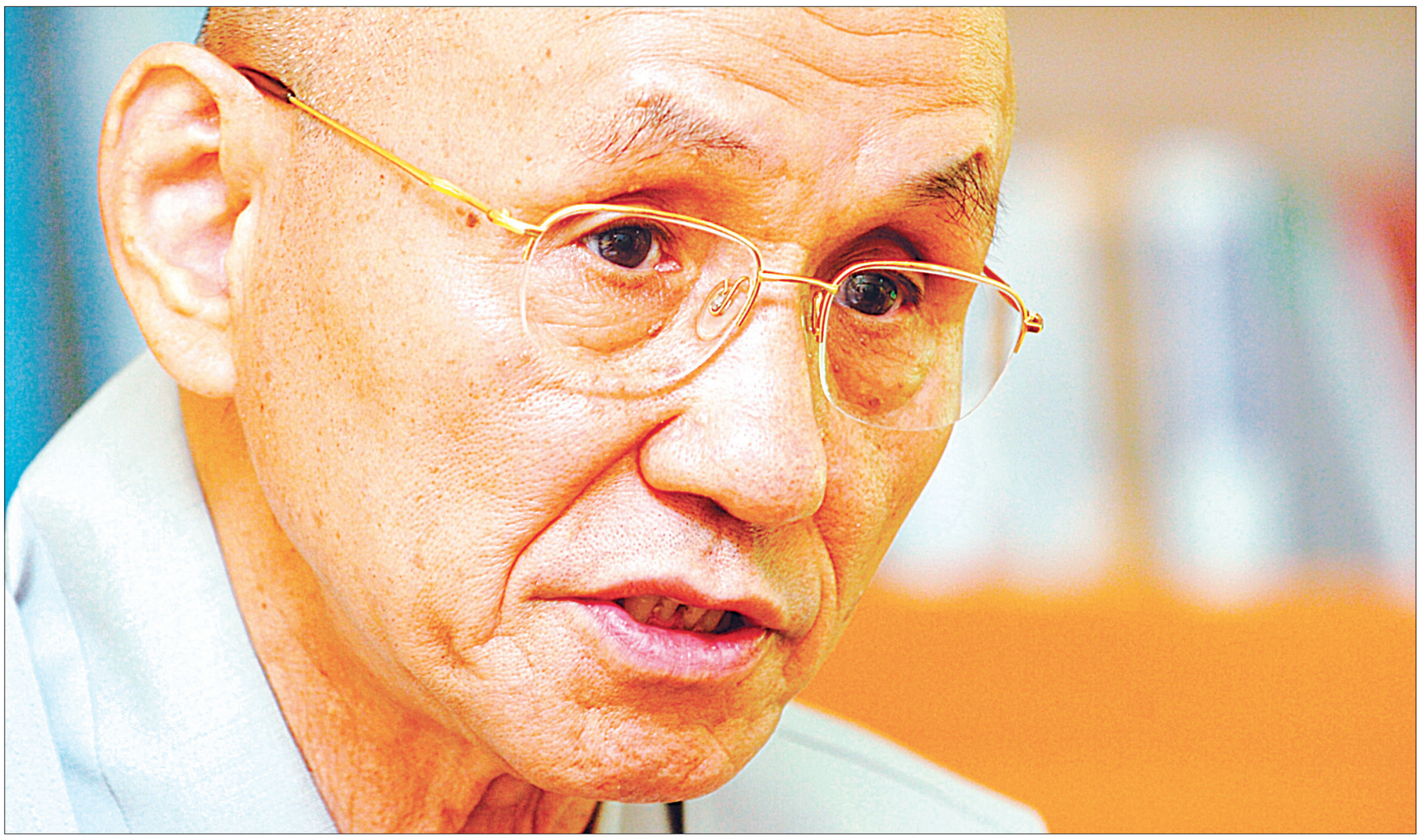


“佛法은 세간에 있다”

생전 법문으로 본 월주 대종사 가르침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생전 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와 영화사 조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나눔의집 이사장 등 종단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래서 월주 대종사는 불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많은 법문과 메시지를 남겼다. 대종사의 법문에는 평소 대종사의 수행, 포교 원력과 사회 갈등 화합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겼고, 이는 현재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歸一心願 饒益衆生’

월주 대종사가 생전 법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願 饒益衆生,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중생을 이익케 하라)’이다. 대종사는 이를 ‘부처님의 본원’임을 강조하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부처님처럼 행하는 것이야말로 조계종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종사는 깨달아 자기 본성자리로 돌아가는 ‘귀일심원’과 세상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요익중생’은 둘이 아님을 강조했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진언이든 수행을 통해 연기법을 깨닫고 동체대비심이 우러나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와 세상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로 융합할 때, 아니 이미 하나로 연결돼 있는 한 몸임을 알아차릴 때 불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 법문을 통해 월주 대종사는 대중들에게 연기법과 자비심을 강조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당부했다. 나와 너, 자연과 세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연결돼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체대비, 우리 모두가 같은 몸임을 깨달을 때 큰 자비심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자비심을 내고 자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행으로써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자 불교의 사회적 존재 이유입니다.”

> “수행과 보살도 실천은 둘이 아니다
>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

〈육조단경〉의 ‘佛法在世間’

월주 대종사는 육조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에 나오는 ‘불법재세간 불리세간각 이세멱보리 흡여구토각(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兎角, 불법은 세간에 있으며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하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을 평소 법문에 자주 인용·강조했다.

2009년 금산사 1410주년 개산대재 법회에서 법석에 오른 월주 대종사는 “자비는 보살도의 근본이며 수행과 보살도의 실천은 둘이 아니다”라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설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심을 갖기를 대중에게 당부했다.

“구도의 본질은 자비행에 있습니다. 보현행을 통해 보리를 얻고 해탈할 수 있다는 신심을 확고히 갖고 실천 수행을 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헐벗고 병든 이웃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못 배운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우물을 파서 기갈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반대하며, 지구촌의 생명이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생명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비가 이 시대의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월주 대종사가 평소 법문과 대외 메시지를 통해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던진 ‘화두’다. 대종사가 강조한 ‘이 시대의 보살행’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눈높이 자비행이다. 이는 2004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며 남긴 소감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사람,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본래 생사가 없으니 마음을 갈고 닦아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설법은 그저 귓전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야말로 진정한 전법도생입니다. 불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기여해야 하고, 그 영역의 확대를 통해 자비와 이타의 종교임을 확실히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이타·상생의 삶을 살아가라

월주 대종사는 미래의 동냥인 대학생들에게 법어를 내리기도 했다. 대종사는 공부함에 있어서 출세가 아닌 사회 환원과 회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와 사회에 회향하고 환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 욕망 충족과 출세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이의 기본자세입니다. 나의 이웃이 질병과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 하며, 자연과 환경을 살리고 전쟁을 방지해 지구촌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대종사는 다양한 자리에서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법을 설했다.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절제된 언어와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으며, 노사에게는 상생의 지혜를 요구했다. 또한 극좌·극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을 벗어날 것도 당부했다. 결국 소통과 상생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는 2007년 1월 ‘화해와 상생’ 모임에서의 격려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론 분열의 큰 골인 극좌·극우의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접점이 우리 사회 이념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돼야 합니다. 화합과 중도를 지향하는 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지도력과 사회통합력으로 확대될 때 우리 사회가 다소 혼란과 진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국민통합과 국가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월주 대종사 생전 어록

“동체대비 실천은 글로벌 시대 의무”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등 불교계 종무행정 뿐만 아니라 종교화합, 경제, 해외구호, 통일, 환경 등 다양한 사회단체 수장으로 활동했다. 그 만큼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했다. 대종사가 생전에 남긴 대외 메시지와 언론 인터뷰 어록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대사회적인 자비실천도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영역을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10년, 20년 아니 그 이후까지 내다보며, 보살행(보현행원)에 입각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계는 밖으로 눈을 돌려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 2004년 제17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소감

“정부는 10.27법난의 배경, 입안, 지시, 집행과정과 결정 등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확연히 밝히고, 당시 피해자는 물론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제반 대책을 마련해 역사의 이정표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 〈10.27법난의 진실과 증언 Ⅰ·Ⅱ〉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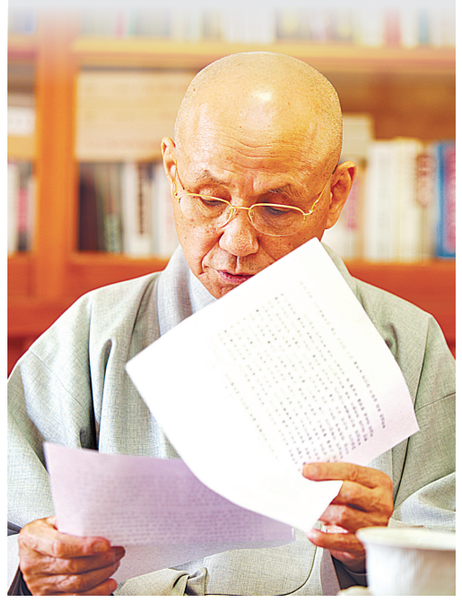
“불교계는 수행에 중점을 두다 보니 타 종교에 비해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는 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자비행(慈悲行)과 이타행(利他行)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포교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이 있거든 사회를 위해 그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신동아〉, 2008년 인터뷰**

“지구촌 12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10억 명은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나 빈곤국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당장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자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 〈문화일보〉, 2010년 인터뷰

“이제 ‘잘 살아보세’ 대신 ‘올바르게 살아보세’ 같은 정신운동이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향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평택시사신문〉, 2013년 인터뷰**

“〈벽암록(碧巖錄)〉에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모든 존재 역시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뜻이지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에 기반을 두어 자비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계가 이웃 종교보다 국제구호 운동에 뒤처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 〈연합뉴스〉 2014년 송년 인터뷰

“자기 하는 일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비교하지 않고, ‘이 정도하면 낫지 않는가’라고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헤럴드 경제〉, 2016년 인터뷰



“세상과 함께 한 대종사 가르침 따르겠다”

정치·시민사회, 월주 대종사 애도 메시지 잇달아
이낙연·정세균 등 SNS 추모
이재명 메시지엔 ‘불편’ 심경도
5.18 관련 단체 등 추모메시지

태공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원적에 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정세균 前 국무총리는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진 후 오후 12시경 금산사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해 추모글을 게재하고 “월주 스님은 속세에서 화엄세계의 구현을 실천하며 평생을 정진해오셨다”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우리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으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셨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안식처인 ‘나눔의집’을 세우셨고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다”고 기렸다.

이낙연 前 국무총리는 SNS에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월주 스님의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제하의 추모글을 게재했다. 이 前 총리는 “스님은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지도자 삼총사’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시는 등 종교의 경계도 넘나드셨다”며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주어야 한다’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신 스님의 생은 저희에게 죽비와 같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스님과의 인연을 밝히며 애도했다. 오 시장은 “월주 스님께서는 평소 불교계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세상의 아픔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불교계에서 처음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도 월주 스님의 공이 컸고 대형 재난으로 힘든 이웃을 위한 긴급구호사업이라면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섰던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차별, 냉대,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라며 재차 애도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에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원적을 기리며’ 제하의 추모글을 공개했다. 그는 “진흙탕 세상으로 나아가 길을 내고, 길을 밝히고, 직접 길을 걸어가신 월주 스님의 원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눔의집과 관련해 과도한 행정조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스님을 추도하는 글을 게재한 데 따른 불편한 시각이 적지 않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장인 월주 스님과 이사 스님들에 대해 언론 경·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해임을 강행하는 등 과도한 조치로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7월 22일 발표한 추모메시지를 통해 “전두환 군부정권 지시를 거부한 월주 스님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신성민·송지희 기자